

'고통 나눔' 정의실현 열쇠삼아

산문박의 禪

인권불침번 박원순 변호사



전화벨 소리가 계속해서 요란하게 울리고 험담한 네티가 차림의 40대 남자가 수화기를 통해 무엇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기자가 찾아 들었는데도 눈으로밖에 인사하지 못할 정도로 손놀림도 비뚤 돌아오고 있었다.

박원순변호사(4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정력가. 이름 꽤나 알려진 셈치고는, 법조인이라는 딱딱한 선입견과는 달리 시골 어느 구석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온화한 얼굴이다.

"사건을 맡아 변론하는 것이 제 본

인권변호사라는 단어가 없는 세상, 바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기 때문이다.

고교때 '룸비니' 활동 인연

그렇기에 그의 고민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고루 나누어 줄 수 있을까로 시작된다. 남부러울 것 없는 위치에 와 있으면서도 동분서주하며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을 바꾸어 보려고 몰부림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원순변호사가 불교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때는 경기도 재화시절 불교 동아

"수행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민족종교의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로 성공성큼 걸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신적 귀의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운동이야말로 민주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으로 현재 참여 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맡아 시민운동의 일선에서 뛰고 있다. 그가 가

승 한시선'의 원효스님 시 한 구절... 이 모든 것이 오늘날 목소리를 높이며 약한 자의 불침번이 된 오늘의 그를 있게 한 것이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부처님 법과 인간이 만든 법(법률)의 차이를 몰았다. 분명 어려운 질문이었다. 그러나 박원순변호사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답문을 열었다.

"부처님 법은 만물을 사랑하고 진리

"부처님 법은 만물을 사랑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세속법 역시 최소한의 도덕으로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뿐 중생제도는 다름바 없지요"

"세속법에 묻혀 살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척도"

업이긴 하지만 한 시민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 사회구현에 진념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근래들어 최고의 쟁점으로 떠오른 5·18문제와 인권, 통일, 국가보안법, 일본군 위안부문제 등 민주사회와 바른 역사를 찾기 위한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박원순변호사.

경기도 서울대를 거쳐 22회 사시에 합격 세칭 최정예코스를 거쳐왔기에 남부러울 것이 없어보이지만 그의 고민은 늘 속제로 남아있기만 하다.

"지금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권리마저 빼앗긴 채 그늘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 그는 자신에게 불어닥치는 이 수식어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리 '룸비니' 활동을 하면서 부터다. 바쁜 일상 탓에 자주 산사를 찾지는 못하지만 불교계의 관련행사가 있을 때는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곤 한다.

그런 불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박원순변호사는 사회문제를 다루는 지식인답게 불교의 대 사회활동을 강조한다.

"이젠 불교도 사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천6백년동안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불교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다운 삶을 역설하신 인간해방론자였음을 상기시킨다. 부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부처님이 자상하게 알려주신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이 사회의 온갖 비이상적이고 비인간적인 문제들은 일어날 수가 없을지 모르겠다. 박원순변호사에게는 불교의 소극적인 사회역할이 너무나 아쉬운 것이다.

장 소망하는 것은 다르아 이 사회의 진정한 평화이다.

그렇기에 그는 민족성을 강조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갈구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의 철학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한여름 소나기 녹아내리고 있다.

법은 인간다운 삶의 도구

때로는 폭주하는 업무와 자신 스스로가 벌여놓은 일에 대해 회의로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러나 결코 낙담한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부처님 법으로 사람 일이 다루어지는 그날까지 세간법에 전념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시절 뜻하지 않은 4개월여의 수감생활. 그때에 책에 빠져 '책의 바다'를 항해하던 시절, 고시공부중 험겨울 때마다 자신을 붙잡아주었던 '고려 고

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또 세속법도 최소한의 도덕으로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크고 작고의 차이만 있을 뿐 진리를 펴고자 함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중생을 제도하는 일과 법조인이 그늘진 사회를 밝게 하는 역할이 다를 바 없다는 한마디로 자신의 일을 이렇게 표현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세속법을 부처님법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속법의 법률가로서가 아닌, 부처님법의 전달자로서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원순변호사는 자신이 품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원력을 부처님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한명우 기자



심화·이기선

몸의 때보다 마음의 때 먼저 씻자

사람의 몸에는 가만히 있어도 때가 낀다. 살갗이 자연과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무 리 목욕을 지루하다해도 얼마 지나면 때가 묻게 된다. 강이나 못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제 몸을 청결히 하기 위한 것이다. 목욕을 하고 나면 상쾌하다. 해수욕을 하거나 열탕욕을 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태양의 조광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일광욕을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임간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자연의 맑은 공기를 체내에 공급하여 심장기능을 해롭게 하는 것이리라. 새들도 모래 목욕을 하고 뭇짐승들도 강이나 호수를 만나면 목욕을 한다. 사람이나 금수도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일찍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에 대한 법설이 있다. 법수(法水)로 목욕하면 큰 믿음 나와

유물이 그것을 얻을 것이다. 어떤 것이 네 가지 깨끗한 믿음인가. 그것은 부처님에 대해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성취하고, 법과 승가, 거룩한 계율에 대해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성취

의 제자들은 남의 믿음이나 남의 욕심을 의지하지 않고 남의 지식을 따르지 않으며, 남의 뜻을 취하거나 남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진실하게 보고 아는 바른 지혜를 가졌다고 말한다."

그때에 난다에게는 따르던 이가 있었는데 그가 난다에게 말하였다.

"목욕할 때가 되었습니까. 이제 떠나야 하겠습니까."

난다는 대답하였다.

"나는 인간의 목욕이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이 훌륭하고 묘한 법에 스스로 목욕하였으니, 세존 계신 곳에서 나는 깨끗한 믿음과 즐거움을 얻었다."

리차비종족 코끼리 다루는 사람 난다는, 그때 이처럼 부처님 말씀을 듣고 따라 기뻐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예 배하고 떠났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48

법욕(法浴)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믿음을 성취한 성인의 제자가 위하여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천상이나 인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밝히고 참다움을 구현하는 법수(法水)에서 세척되면 금강보리를 성취한 것이다.

세속의 오염도 씻어내야 하지만 진여법에서 번뇌를 씻어내는 목욕을 하여야 한다. 난다의 목욕은 깨끗을 열어 주는 것이므로 법신체가 되는 목욕일 것이다. 정상배가 하루종일 사우나탕에서 세속을 물들이는 공상을 떨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청정한 가르침인가.

이 경문은 이차경(離車經)의 말씀이다. 세상사람이 몸의 때를 씻기 위하여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천상이나 인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밝히고 참다움을 구현하는 법수(法水)에서 세척되면 금강보리를 성취한 것이다.

세속의 오염도 씻어내야 하지만 진여법에서 번뇌를 씻어내는 목욕을 하여야 한다. 난다의 목욕은 깨끗을 열어 주는 것이므로 법신체가 되는 목욕일 것이다. 정상배가 하루종일 사우나탕에서 세속을 물들이는 공상을 떨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청정한 가르침인가.

국씨전영양소

전국 광역시단위 총판 및 시도지역 대리점 모집

확실한 성공 사업의 지름길로 초대합니다

■ 유통업자 ■ 기존 다이어트 아이템 취급자 ■ 사업체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분 ■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는 분

● 세계인을 위한 ●

다이어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한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된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작하여 만든 제품.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중국 고위 인부 주거지/모택동 동소영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부산경남총판
(051) 818-0337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정우무역** 전화:(02) 929-0211~4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